

장흥한우주식회사 무분별 투자 파산 위기

郡 주주모집 주도 한우농가 등 101명 18억원 출자해 출범 광주에 43억원 들여 한우백화점 개장 타격...비상체제 운영

장흥한우주식회사가 방만한 경영과 무분별한 투자로 파산 위기에 처해 있다. 장흥한우(주)는 지난 2010년 장흥군이 전남도의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체육성사업' 승인을 거쳐 한우농가와 유통 및 가공업체 등 순수 민간참여형(주) 형태로 총 출자자(101명), 출자금 18억원 규모로 출범했다.

장흥한우(주)는 군 당국이 장흥한우(주) 설립시 ▲삼산간척지에 대규모 축산단지 조성 ▲해당산단내 도축장 건립 및 가공 시설 운영 ▲한우산업 육성사업에 262억

원(중장기) 투자 ▲5년 내 코스닥 상장 등의 명분을 내세워 주주모집을 주도했다. 이에 군은 장흥한우(주)에 설립지원금 명목으로 군비 7000만원을 지원했다. 장흥한우(주)는 출자금 가운데 16억원을 포함 총 43억원을 들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동(수완지구) 2429㎡ 부지를 매입 연건평 998㎡(3층) 규모인 육가공 시스템 한우판매장(1층), 한우전문식당(2층), 사무실(3층) 시설을 갖춘 '한우백화점' 건물을 무리하게 신축 지난해 3월 개장했다. 하지만 장흥한우(주)는 이렇다 할 대책

도 없이 담보 설정을 하면서 27여억원을 건물 공사비에 투자했다.

기구 운영 또한 대표, 본부장, 전무, 부장, 사무원 등의 불필요한 체제로 인건비와 판공비성 성격의 소모성 예산을 무분별하게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3월 1억원 이상 고액 출자 주주(6·7명)들이 문도 대표체제의 방만한 경영을 문제 삼아 장흥읍에 둔 사무소의 문을 닫았다.

장흥한우(주)는 지난해 초 긴급 주주대표자 회의를 소집, 문도 대표이사를 전격 해임하고 최고 출자자(3억원)인 김현복(52)씨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제반 경비지출을 줄이는 등 비상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최근 열린 비대위 모임에서 5000만원을 출자한 장흥군 의회 김모(64) 의원에 대한 출자증서 누락사실도 드러났다.

현재 장흥한우(주)가 광주 수완지구 소재한 '백화점' 건립비 등 부채는 총 35여 억원에 달하며 현재 영업 이익금으로 부채 융자금을 상환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현복 장흥한우(주) 비대위위원장은 "같은 민간참여형 법인체인 장흥무산김(주)회사와 장흥표고(주)회사가 군 당국에서 수십억원 이상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지원받았다"면서 "장흥군이 1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만 지원해주면 추가로 주주자를 모집, 장흥한우(주)를 정상 궤도로 올려놓겠다"고 말했다.

정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현대삼호중공업 대표이사 하경진 사장(오른쪽에서 두 번째) 등이 27일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에 참가해 김치를 버무리고 있다. <현대삼호중공업 제공>

현대삼호중 주부대학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소외이웃 150 가정에 700포기 전달

현대삼호중공업(대표이사 하경진 사장) 주부대학 총동창회가 올해로 10번째 맞는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개최해 연말 일정 나누기에 나섰다.

현대삼호중공업은 27일 '주부대학 총동창회 주관으로 이날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원아파트 기숙사 식당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하경진 사장을 비롯해 임미화 총동창회장과 회원 등 100여 명이 참가해 700포기의 배추로 김장 봉사활동에 나섰다.

총동창회 회원들은 이날 행사를 위해 이를 전부터 배추 절임과 양념 만들기 사전 준비 과정에도 참가했다.

김장김치는 영암군 내 11개 마을에 살

고 있는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장애인가족 등 150여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임미화 총동창회장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10번째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생각에 회원들 모두가 적극적으로 행사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삼호주부대학은 지난 2001년 현대삼호중공업이 사우 부인과 지역 주부를 대상으로 개설됐으며, 올해까지 사정 준비 과정에도 참가했다.

김장김치는 영암군 내 11개 마을에 살

영암=대성수기자 dss@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영암군 전남지역 1위

영암군이 안전행정부에서 실시한 '2014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결과 상수도 분야에서 전남지역 1위를 차지했다.

'2014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지난 4월부터 5개월간 대학교수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전국의 모든 상·하수도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시스템 등 5개 부문에 대해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한 후 안전행정부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 의결로 평가등급이 최종 확정됐다.

경영평가 결과 영암군은 전체적으로 영업수지 비율이 전년도 대비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1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았다.

특히 상수도 공기업은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 상수도 노후관 교체 및 신설 사업을 실시하고 ▲정수분야에서 수질 자동측정기를 이용해 수질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였으며 ▲15분 간격의 실시간 수질감시로 효율적인 정수시설 운영 등 맑은 물공급과 유수율 제고에 기여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가정의 노후화된 급수관 교체 ▲겨울철 동파방지 계량기 교체 사업 ▲복합 시각차대해소와 상수도 보급률을 향상 ▲AI 가족매몰지 인근 마을의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을 통해 급수 중단을 사전예방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이번 평가결과는 무엇보다 군민의 기초생활과 직결되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여서 더욱 값진 결과"라면서 "앞으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암=대성수기자 dss@kwangju.co.kr



강진군이 꽃을 이용한 가공, 유통, 체험 등 6차 산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진 한 농원에서 군 관계자 등이 만개한 꽃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강진군 제공>

강진군 화훼 6차산업 수익모델 개발 탄력

농촌진흥청 공모사업 선정

내년 2년차 사업비 5억 확보

꽃을 이용한 가공, 유통, 체험 등의 6차 산업을 선도하는 전남 강진군의 화훼 6차산업 수익모델 개발에 탄력이 붙었다. 강진군은 27일 "농촌진흥청에서 공모한 6차산업 수익모델사업에 채택돼 내년 2년차 사업비로 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올해 6차산업 수입모델사업이 채택돼

추진 중인 군은 최근 현지 평가와 발표를 통과, 사업을 연계 발전시킬 수 있게 됐다.

군은 '화훼산업을 이용한 어메티'란 주제로 올해 기존의 화훼생산기반을 바탕으로 심포지엄 등 생산기술력 향상을 꾀했다. 전시 판매장 등의 유통 및 홍보체계 확립과 함께 꽃비누 개발 등 6차산업화를 시도하고 있다.

내년에는 팜심화훼농업조합법인과 연대경영체 지원, 상품표 보급, 교육 홍보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제품 개발과 상품화, 지역 문화 자원과 연계한 체험, 음식, 숙박은 물론 노동력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로 '화훼산업 1번지'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군농업기술센터 고형록 교육정보팀장은 "1차년도가 준비단계였다면 2차년도인 내년은 완성하는 해다"면서 "세부적인 사항까지 꼼꼼히 챙겨 강진을 6차산업화 1번지로서의 모델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시문학과 김현구 시인 재조명 활발

강진군시문학과기념관 후원 학술강연회

1930년대 김영랑 시인과 시문학과 '동인'으로 활동한 김현구 시인에 대한 문학적 조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연구기념사업회(회장 박석진)는 강진군시문학과기념관 후원으로 27일 시문학과기념관 세미나실에서 '김현구 시세계 고찰'이란 학술강연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현구 시인의 차남 김문배(75, 경기도 부천시 원미동) 씨를 비롯, 김은희(장녀)·정희(3녀)·명희(4녀) 씨 등 유가족들이 참석, 그동안 문단에 알려지지 않은 현구 시인에 대한 에피소드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또 이경수 중앙대 교수(문학평론가)는 '김현구 시 세계 고찰'이란 학술강연에서 현구 시인이 그동안 한국문학사에

서 드러나지 않았던 원인과 그의 시세계 전모를 고찰, 문학사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틀을 제시했다.

올해 문예특기생으로 선발된 황재정(강진 성요셉여고 2)양에게 '현구 시인 문예장학금'도 전달됐다. 장학금은 현구 시인 유족들이 기금을 모아 지난 2000년부터 매년 강진지역 고교 문예특기생에게 전달해오고 있다.

한편 김현구 시인은 1904년 강진을 서성리에서 태어나 1921년 영랑 시인과 함께 '청구' 동인을 결성해 활동했으며, 1930년 5월 '시문학' 제2호에 '임이여 강물이 몹시도 퍼렇습니다' 등 작품 4편을 발표하며 시단에 나왔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남도공인중개사

<혁신도시 주변 매물>

전원주택

- ▶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대지 및 전 2,305㎡, 주택 2동 각종 유실수 화초 식재됨. 전망 양호, 매4억
- ▶ 나주시 용산동 대지 및 전 5,100㎡ 황토 주택 3동 교통편리, 매7억
- ▶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대지 및 전 1,733㎡ 슬라브주택 교통편리, 매9천만

농지 / 임야

- ▶ 나주시 금천면 오강리 전 및 대지 6,600㎡ 주택 2차선 도로변 및 4차선 국도점, 매10억
- ▶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담 6,605㎡ 도로양호, 전으로 사용가능, 매1억 4천만
- ▶ 나주시 공산면 동촌리 전 25,120㎡ 2차선 도로변, 관리지역, 투자유망 매5억
- ▶ 나주시 세지면 교산리 전(지목상 임야) 20,495㎡ 영농조건 양호, 임대수익 양호, 투자유망, 매3억 7천만
- ▶ 나주시 관정동 매립지 전 7,547㎡, 2차선 도로변, 매3억 2천만
- ▶ 나주시 금천면 월산리 담 2,975㎡, 2차선 도로변, 매1억 3천만
- ▶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담 13,530㎡, 면 소재지, 매3억
- ▶ 나주시 남평읍 광촌리 임야 1,384,140㎡(대지, 농지 포함)소나무 양호, 수려함, 선산 적합, 매30억
- ▶ 영암군 금정면 안로리 대봉김나무 과수원, 고소득 가능, 매4억
- ▶ 영암군 덕진면 금강리 전 6,600㎡ 4차선 도로변, 계획 관리지역, 매2억 9천만
- ▶ 영암군 신평면 모산리 전 70,835㎡(4차선 국도변, 전체 계획 관리지역, 남향, 투자유망, 매17억

나주시 금천면 영산로 5740
☎ 010-9510-1150, 061) 333-1150

★4성급★ 호텔건물매매

현재 노인요양시설 허가 취득

- 엘리베이터 설치 및 리모델링공사 완료
- 목포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위치
- 4성급호텔, 노인병원 등 즉시 사업가능 (커피숍은 휴업중)
- 주차장 및 부속상가 건물 3동

한국감정원 강경가 보다 20% 감액 매매 예정
· 매매가액 상담 후 결정
· 현장 답사 요망

목포시 대의동 2가 1-9번지의 3필지(지상 9층 지하 1층)
토지면적 3,478㎡(1,054평)/건축연면적 7,091㎡(2,149평)
연락처 010-9823-7781, 010-9668-5151

땅 매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210-32
담900평 생산녹지 나무식재가능

용자 2억 4천만원
매가 3억 6천만원
(중개 수수료 없음)

주인직매 010-8676-1900